

직장 없는 가장 ↑…4050 고용한파에 우울증 ‘적신호’

건설업·제조업 등 위축으로 취업 문 좁아져

‘백수’ 4050男 우울 극심…고용안정 정책 절실

집안의 기둥이자 노동시장의 허리 층인 40·50대가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제조업·건설업에 고용 한파가 장기화하면서 이들이 고용시장에서 외면 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증가했지만, 40대와 50대 취업자는 각각 4만9000명, 2만6000명 줄었다. 특히 40대 취업자 수는 2022년 7월부터 3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도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어든 채 있는 상황이다. 40대와 50대는 한 가구를 책임지는 ‘가장’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의 일자리 찾기는 혹독하기만 한 상황이다. 고용시장이 우리나라 버팀목인 40~50대에만 인색한 배경에는 건설업과 제조업, 도소매업 산업 부진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들의 주요 무대인 산업이 흔들리면서 취업시장 문도 따라 좁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3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5000명 줄며 8.7%의 감소율을 보였다. 제조업도 1년 전보다 11만2000명(-2.5%) 줄었고, 도소매업은 같은 기

간 2만6000명(-0.8%) 쪼그라들었다. 건설업은 11개월, 제조업은 9개월, 도소매업은 1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건설업계 곳곳에선 경영 위기를 버티지 못한 기업들의 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고, 향후 노블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고용시장을 더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40~50대 일자리 상황엔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는 상황이다. 고용한파가 장기화하며 평균 40대 후반부터 퇴직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상황을 암울케 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를 살펴보니 55세부터 64세 취업 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당시 평균 연령은 49.4세로 집계됐다. 전년 60세보다 10년 이상 빠른 것이다.

집안의 장으로서 가장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할 시기에 직장을 떠나고 있다는 뜻이다. 직장을 그만둔 사유를 보면 ‘사업 부진·조업중단·휴폐업’이 29.1%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19.1%)와 ‘가족을 돌보기 위해’(15.8%),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 등도 일자리를 잃은 이유로 꼽혔다. 대체로 타의적인 이유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난 40~50대 남성의 우울감은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남진영 교수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60세 남녀 1만4087명의 취업 상태별 우울 위험을 분석한 결과 미취업자의 우울 경험률이 취업자보

다 두 배 높았다. 특히 40대 미취업 남성의 경우 우울감이 50대 취업자의 8.3배에 달했다. 가장으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시기에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면서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우울로 이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40~50대 취업난의 심각성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고령화에 대응해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집중하고 있으며, 청년층만 15~34세) 고용 지원 대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취업자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보다는, 경제의 중심축인 40~50대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뉴스

‘금값 사상 최고’

시중은행 골드뱅킹 1조 돌파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금 통장(골드뱅킹)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 발(發) ‘관세 폭탄’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대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 관련 상품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골드뱅킹을 판매하는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3곳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1조649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말 잔액 6101억원 대비 4548억원(75%) 가량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말 1조원을 넘어서는 골드뱅킹 잔액은 이달 들어서만 약 보름 만에 384억원 불어났다. 골드뱅킹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 계좌를 통해 금을 0.01g단위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다. 실패 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가입 기한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을 매입·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금 통장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은 금값이 전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다. 국제 금값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1온스(약 31g)당 33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내에서도 지난 17일 순금 한 돈(3.75g) 가격이 65만6000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금 투자 열풍은 은(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연비 45% ↑…현대차, 차세대 하이브리드 베일 벗다

P1+P2 병렬 구조로 효율 극대화…2.5 터보 엔진

부드러운 변속감·정속성 강화…V2L·스테이 모드



지난 10일 서울 ‘크레스트 72’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테크 데이를 개최하고, 한층 진화된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공개했다. /현대차 제공

현대차그룹이 성능과 연비를 개선하고, 전동화 특화 기술을 집결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했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하이브리드 기술의 새로운 진화를 예고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크레스트72에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테크 데이’를 열고, 새롭게 개발한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와 주요 기술을 소개했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 구동 및 회생 제동을 담당하는 구동 모터(P2)에, 시동과 발전, 구동력 보조 기능을 수행하는 신규 모터(P1)를 추가한 ‘P1+P2 병렬형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P1 모터는 엔진에 직접 체결되는 방식으로, 기존 시스템 대비 마

찰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전달 효율을 크게 높인 것이 핵심이다. 주행 상황에 따라 P2 모터와 함께 구동력을 보조해 연비와 동력 성능을 동시에 개선한다.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에는 신규 P1 모터가 적용돼 엔진 시동과 발전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메인 벨트, 알터네이터, 에어컨 컴프레서 등 기존 부품이 제거돼 동력 손실이 줄었다.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탑재되는 이 엔진은 리터당 연비 14.1km를 기록하며, 기존 2.5 터보 가솔린 대비 연비는 약 45%, 최고 출력(335마력)과 최대 토크(46.9kgf·m)는 각각 19%, 9% 증가했다. 변속기 반응성과 부드러움도 개선되는 방식으로, 기존 시스템 대비 마

에서 주행 중 엔진이 개입할 때 발생하는 이질감을 줄였으며, 엔진클러치 제어를 최적화해 승차감을 높였다. 정차 중에는 P1 모터를 활용해 배터리를 충전하며 진동과 부밍을 최소화하는 기술도 적용돼 실내 정숙성이 향상됐다. 신형 시스템에는 전동화 기반의 다양한 편의 기능도 포함됐다. 전차식 사륜구동 시스템인 ‘e-AWD’는 전륜 기반 차량에 후륜 구동 모터(P4)를 추가해 주행 성능과 가속 응답성을 높인다. e-VMC 2.0은 전후륜 구동 모터의 독립적인 토크 제어로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을 강화한다. 스테이 모드는 고전압 배터리를 활용해 정차 중 엔진 시동 없이 실내 편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캠핑 등 야외 활동에 유용한 V2L(Vehicle to Load) 기능도 탑재됐으며, 최대 3.6kW 출력을 지원한다. V2L은 엔진이 작동 중일 때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현대차그룹은 이 시스템을 다양한 엔진과 조합해 시스템 출력 커버리지를 100마력 초반에서 300마력 중반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형부터 대형, 럭셔리 차종까지 다양한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3종에서 5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달 양산을 시작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처음 탑재됐다. 향후 현대차와 기아의 주요 차종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벼·고구마·옥수수 안정보험 가입하세요

전남, 21일부터 지역 농·축협서 판매…최대 85% 지원

전남도가 농가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1일부터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 피해에 더해 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보험 가입연도)이 기준 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번엔 판매하는 작물은 벼와 고구마, 옥수수 등 3개 품목으로, 보험에 가입할 면적은 1000㎡ 이상이다. 벼는 시범사업으로 영광지역 농업인들만 가입할 수 있고 고구마, 옥수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평균 보험료는 고구마 207만 원, 옥수수 169만 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5%를 지원함에 따라 농업인은 15%로 고구마

는 31만 원, 옥수수는 25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올해 전남도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모두 13개다. 4~6월 고구마·옥수수, 6~7월 콩, 8~9월 가을·월동 양배추·가을감자, 10~11월 마늘·양파, 11월 포도, 10~12월 보리 등 10개 상품이다. 벼(영광)와 가을배추(해남), 가을무(나주·무안) 등 3개 품목은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 재해보험과 보장 범위가 일부 중복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 부분을 보상받으려면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유득구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재해와 가격 변동에 따른 농업수입 불안의 안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대상품목별 접수 기간에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호 기자

농어촌공사·전남대, 농어촌 디지털혁신 속도

인공지능·데이터·정보보안 분야 상호 협력 업무협약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남대학교와 손잡고 농어촌 분야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낸다. 농어촌공사는 전남 전남대학교와 ‘인공지능(AI)·데이터·정보보안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어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협의체 자문 참여 등 전문가 공동 활용, 정보 교류, 대학생 진로 탐색·취업 활동 지원,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연구 기획 등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사는 농어촌 분야 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KRC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이후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국민과 민간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데이터 공유·협업 범위를 넓혀가는 등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공사는 전남대와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전문인력 양성 등 정보 교류를 본격화하고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 디지털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30만원 드려요”…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1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다. 이번 확인지급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 존재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또한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쿠팡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자가 총 5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지급 13만명을 포함하면 총 68만명이 사업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순천대 이상석 교수팀 ‘한우 메탄 저감 생균제 기술’ 개발

메탄자화균 활용 ‘프로바이오틱스’ 적용 세계 최초 성공

국립순천대학교는 동물자원학과 전공 이상석 교수 연구팀이 경상국립대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연구센터장 김선원 교수와 공동으로 반추동물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 과제 지원을 통해 수행됐으며, 연구 성과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애니멀 마이크로바이옴(Animal Microbiome)’ 2025년 최신호에 게재됐다. 특히 반추동물의 메탄 생성 억제제가 아닌, 메탄을 분해하는 미생물(메탄자화균)을 직접 활용해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입증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학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84배 강력한 단기 온난화 효과를 지닌 온실가스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37%가 반추동물의 트림과 방귀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다양한 메탄 저감 시도가 있었지만, 소화 과정에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한계를 지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에 연구팀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반추위 내에서 메탄을 스스로 분해해 단백질 등 영양분으로 전환하는 ‘메탄자화균(Methanotroph)’의 역할을 주목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연구팀은 한우 반추위에서 메탄 분해 능력이 우수한 메탄자화균과 메틸영양균 복합체(NC52PC)를 분리·배양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이 미생물 복합체를 프로바이오틱스 형태로 한우에 급여한 결과, 메탄 배출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가축의 성장과 건강에는 전혀 부작용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는 반추동물의 자연 생태를 해지



국립순천대 이상석 교수.

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룬 혁신적인 사례다. 이상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배출될 메탄을 가축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전환해 자원 선순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메탄 전환 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고려한 맞춤형 생균제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조순의 기자